

21-6, 2021년 7월 6일 밴쿠버 김은중선교사 편지

##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 두 행렬)

"그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눅 7:11-12)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최초로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인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 마침 장례식의 행렬과 마주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싸인 과부를 위로하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심에 대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에 의해 인도되는 생명의 행렬과 사탄에 의해 인도되는 죽음의 행렬이 마주치고 있는 사건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사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 인도되는 장례행렬은 죽음의 행렬로 소망이 없고 절망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한 행렬은 영생의 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아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더 나아가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을 일깨워 주를 믿고 영생의 길에 합류하도록 도우는 일을 해야 겠습니다.

## 2. 6월 한달간의 사역속에 나타난 감사 (교회, 캠퍼스, 전도, 양육, 가정)

지난 한달에도 변함없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중심으로 짧막하게 소식 알려 드립니다.



지난 6월동안에 이루어진 "주 안에 행복한 교회의 예배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mikey(필리핀)형제가 참석하게 되었고 petrcia(아프리카) 자매는 매주마다 예배 나오게 되었습니다. 끈임없이 새로운 얼굴이 나오도록 기도 바랍니다. 영어설교가 날로 성장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토요일 마다 초신자 성경공부가 계속되는데 6월달에는 기존 cathy(미국)와 joe(아프리카)형제가 잘 나왔고 특히 skali 자매가 후반에 함께 나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인간 믿음에 대해 공부하는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의외로 성경에 대한 공부가 진지합니다. 말씀 자체가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매주 1회 공부하지만 은혜가 충만합니다.



6월에는 탁구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North vancouver에 ship yard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탁구다이가 하나 설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덥고 캠퍼스도 코로나로 막혀 있는데 그 장소를 발견하게 되어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매일 탁구치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shasha와 여친, 혜수와 남친 dan, 폴란드출신gina와 mary,캐나다인 wendy,필리핀 mario, 볼리비아 lucca와 이란 moo,한국인 할아버지, 필리핀 kingten,이란 출신 avi, 와 joshi,러시아 출신 alina와 가족들 ,필리핀 tedy와 mikey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놀라운 것은 전도의 접촉점을 잘 생각하고 찾아내면 전도는 되어진다는 사실과 밴쿠버가 다민족이 모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보면 러시아, 필리핀, 미국, 영국, 아프리카,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트 디브아르, 폴란드, 이란,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전도가 잘 이루어 지도록 기도 바랍니다.



아들 형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5섯살에 밴쿠버와서 벌써 13년이 지나 18살이 되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토론토 경제학과에 합격했는데 제가 아는 후배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공부할 것 같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 3. 7월달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1) 주안에 행복한 교회 다민족 영어예배

유학생과 1.5세를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시작한 주안에 행복한 교회의 매주 예배와 영어 설교를 위해 기도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허가가 나와서 올해안에 외국인 교회에 란트하고 오픈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THE WAY 공부 지속되도록

매주 토요일 밤 6시에 하는 초신자 성경공부에 JOE와 CATHY, skali 자매가 끝까지 참석하도록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 중요한 멤버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 3) 캠퍼스의 유학생전도

코비드 상황으로 캠퍼스 방문과 전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빨리 코비드가 해제 되도록 그럴지라도 지속적 전도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 4) 전도가 매일 잘 이루어 지도록

매일 mall과 맥도날트, 카페, ship yard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요즘에 shipyard에서 전도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비드 상황이지만 좋은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 바랍니다..

#### 5) 지속적인 일대일 양육: 창세기 로마서 공부가 지속되도록 (서예화, 혜수, 동수 형제,skali)

#### 6) 자녀를 위한 기도: 형준이 토론토 가기전 학비대출과 생활비도 잘 마련되도록

7) 지속적 후원: 현재 170만원 후원 받고 있는데 300만원의 후원목표가 잘 채워지도록, 일과 사역에 균형을 잘 이룰수 있도록

8) 후원자 가족과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사랑교회, 빛고을 소망교회, 서원교회, 동부겨자씨교회, 진월겨자씨교회를 위해 기도바랍니다.

9) 장기적인 기도제목

-아내의 배우자 비자가 올해 안에 해결되도록

-교회 오픈예배가 올해 안에 외국인 교회를 렌트하여 이루어 지도록

-형준이와 저의 시민권 비자가 나오도록, 미국 방문비자가 올해 해결되도록

-자녀들이 주안에서 항상 강건하도록(요한, 한나, 형준)

-가족 형제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도록